오시는 길

How to get there



9호선/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3·4번 출구 연결 ▶ 서울식물원 주제원(7번 진입구) ▶ 식물문화센터 / 도보 15~20분

9호선) 양천향교역 8번 출구 ▶ 서울식물원 입구(주제원 7번 진입구) ▶ 식물문화센터 / 도보 7~8분 소요

By subway | Take Exit Nos. 3 or 4 at Magoknaru Station on Line No. 9, Incheon Airport Railroad ▶ to the underground passage leading to the Display Garden(Entry Gate NO. 7) of the Seoul Botanic Park 🕨 Take Exit No.8 at Yangcheon Hyanggyo Station on Line No.9▶ Display Garden (Entry Gate NO. 7) of the Seoul Botanic Park ▶

'겸재정선미술관'정류소 하차(도보 7-8분) 간선 672, 지선 6631, 6642, 6712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By bus | Get off at Geomie-Jeongsun Art Center (7-8 minute walk)

Botanic Center (7-8minute walk)

bus Nos. 672, 6631, 6642, 6712

관람시간 | Viewing hours

평일 및 토·일·공휴일: 09:00 ~ 18:00(입장마감 17:00)

휴관 : 매주 월요일

* 기타 휴관일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참조

Weekdays, weekends and holidays: 09:00 ~ 18:00 (Visitors admitted till 17:00) Closed: Every Monday

* Visit the official website for further information

주소 | Address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Botanic Center, Seoul Botanic Park, Magok-dong-ro 161,

Gangseo-gu, Seoul 관람료 무료 | Entrance fee free

서울식물원 대표전화 02-2014-9711

페이스북 seoulbotanicpark

문의 | Inquiry 홈페이지 botanicpark.seoul.go.kr

모순된 아름다움의 경고

이정훈





도심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인공적 삭막함을 상쇄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욕망은 확대된다. 도심 속 자연을 함께할 수 있는 곳은 도시에 존재하는 산과 강변 그리고 도시계획에 따라 구성된 공원이다. 특히 다양한 나무들이 어우러진 공원과 함께 한 런던의 큐가든(Kew Gardens)과 뉴욕 식물원(New York Botanical Garden) 등 세계 대도시의 식물원들은 자연의 생태 관람 및 체험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다. 현대 식물원은 다양한 식물의 연구를 위한 학술적 목적의 제한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예술과 결합되어, 사람들이 즐기고 체험하며 에너지를 충전해가는 감각적인(trendy) 문화공간으로 확장된 의미를 1 갖는다. 일례로, 근자에 뉴욕식물원은 식물원 조경과 유리 설치작업을 기반한 전시 〈CHIUHLY,2017.4.27.~10.29.〉와 확대된 꽃을 그린 회화작품과 열대 꽃 조경을 연출한 전시 〈Georgia O' Keeffe: Visions of Hawaii, 2018.5.19.~10.28. >를 통해 확장된 문화공간으로서 식물원의 의미와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트렌드에 맞춰 보다 확장된 의미로서 준비된 서울식물원의 〈피어나다/2018.10.11.~2019.4.14.〉전시는

식물원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간이 가진 의미와 목적이

더욱더 풍부한 의미로 확장될 수 있도록 작가 정찬부(Jung chan boo)에 의해 식물생장 단계를 상징화한 작업과 환경 지표종(Indicator species, 指標種)²의 의미를 담은 작업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로비에 들어서면 공중에 매달린 형형색색 다양한 크기의 씨앗 모양 덩어리들과 기다랗게 늘어진 푸른색 잎사귀 형태들이 각각의 높낮이로 위치하며 물결치듯 공간에 수직적으로 설치되어있고, 벽면에는 화려한 색상의 도마뱀들이 진초록의 산세베리아 틈새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개별적 개체들이 서로 조응하며 이뤄낸 설치물들은 공간에 거대한 에너지 흐름을 형성하며 폭발적인 에너지로 관람객을 에워쌈으로써 새로운 시각적 체험을 선사한다. 관람객은 이 공간에서 특별한 몰입감을 통해 대체할 수 없는 이 시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존성(presentness)3을 충분하고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설치 작업을 구성하는 재료가 이색적이게도 빨대라는 것이다. 자연의 생명력이 넘치는 식물원이라는 공간에 작가는 생태환경의 재앙으로 대표되는 플라스틱 빨대를 집적시킨 작업으로 매혹적인 인공의 자연을 구성해냈다. 의미면에서 쌍방 대척점이 조화롭게 결합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든 모순된

2. 지표종(indicator species, 指標種): 특정지역의 환경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되는 생물을

3. 현존성[現存性, presentness] : 현존성은 프리드(Michael Fried)의 리터럴 아트와 대상성 개념 는 게임이다. 따라서 연존성에서의 얼망은 곧 대상을 접함에 있어 대상성의 상태로 전략하. - C. 리네 대화화여즈이를 그리하므로 싸워 났다는 그리나 리트리스 (1975년 1975년

아름다움은, 작가가 우리에게 자연은 항상 보호하고 지켜야 할 존재임을 확인시키는 경고 메시지이다. 생명조차 일회용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현대문명에 대해, 작가는 형형색색의 빨대로 구성된 작업을 통해 자연파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수한 생명의 에너지를 흡입하는 욕망과 소비로 점철된 문명의 이기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

빨대, 자연을 엮다

자연을 동경하면서도 문명의 이기적 생활에 매혹당하는 현대 삶의 태도에 대한 각성을 자연에 가장 상반된 요소 중 하나인 빨대라는 소재를 통해 매혹적인 인공의 자연으로 구성함으로써, 진정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는 작가의 반어적 어법은 매우 효과적인 결과로 읽혀진다.

전시 〈피어나다〉는 식물원이라는 장소성과 의미의 해석, 공간과 작업의 관계성, 관객들과 소통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성격 등 시민들과 호흡하고 교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비한 기획이다. 식물원이 문화적 공간인지 아닌지 확대된 의미를 확인하고 싶지 않은가? 궁금하다면 마음껏 경험하고 즐기면서 확인해봄은 어떠한가.

gardens.

Warning of a contradictory beauty

As the center of a city develops more, so does the yearning for

nature grow bigger among the people in the hope of off setting the

lifelessness of artificiality. The place where one can be with nature

in such center is a park that is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urban

planning and in consideration of surrounding mountains or riversides.

In particular, the London Kew Gardens, the New York Botanical Garden

and other botanic gardens of the world's major cities that include a

Today's botanic gardens go beyond being a space limited to

themselves experiencing new sensations and thus renew their

the artist's little-known close-up oil paintings of flowers and the

landscapes of the exotic tropical flowers she encountered in the

researching biodiversity to redefine themselves as a trendy space

through and being present to nature at work.

park lush with diverse trees have become a leading landmark of their

Lee Jounghoon





In step with such an international trend, the Seoul Botanic Park is holding an exhibition, 'Come into Bloom', through April 14, 2019. In hopes of further expanding and enriching the meaning and purposes of a botanic park in consideration of its unique locality, the artist Jung chan boo has composed the exhibition with his works symbolizing the growth stages of plants and embodying the significance of indicator species.

Upon entering the lobby of the Botanic Center of the Seoul Botanic

respective city where people can recharge themselves by strolling Park, visitors can see colorful, seed-shaped lumps of diverse size hung in the midair and diverse shapes and colors of lumps and longdrooping, green leaf-shaped pieces, allvertically installed in the midair in the order of height and swaying in unison like wavelets; on the where art and plant culture come together, and where visitors enjoy walls are lizards of brilliant colors tucked among heavy-green leaves of sansevieria. As the installations, composed of different entities energies. For example, the New York Botanical Garden has recently in accord with one another, form a great flow of energy in the space, exhibited 'CHIUHLY' showcasing the artist's signature organic shapes visitors, engulfed in a powerful energy, become aware of a new visual in brilliant colors, and 'Georgia O' Keeffe: Visions of Hawaii' displaying experience. Feeling a special sense of immersion in the space, visitors can amply experience with pleasure the presentness that can be felt in that irreplaceable space time. island, thus demonstrating the expanded definition and role of botanic

What's more interesting is the fact that all the art works on display are made of one material—the plastic straw. In the space called a botanic park teeming with the vitality of nature, the artist used only plastic straws, a symbolic culprit responsible for the current

2. Indicator species: An indicator species is an organism whose presence, absence or abundance reflects a specific environmental condition. Indicator species can signal a change in the biological condition of a particular ecosystem, and thus may be used as a proxy to diagnose the health of an ecosystem (excerpted from the Encyclopedia of

3. Presentness: Presentness is a concept that forms part of a modernism worldview that derives the awareness and experience of objects (or art works) in conn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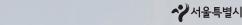
ecological disaster, creating a tantalizing artificial nature. Through this contradictory beauty, created with an irony of two antipodal things in meaning, integrating, however, with each other in harmony, the artist warns us that nature is something that we must protect and preserve all time. As for modern civilization, where even life is replaced in the manner of instant, the artist draws attention, through the composition of plastic straw-made installations, to the self-destructiveness of a civilization marked by consumption and desires that suck the energy of life out of nature.

As a warning against a modern lifestyle that maintains the yearning for nature yet remains hooked on the selfish livelihood of civilization, the artist constructs a seductive artificial nature with one of materials considered the most antipodal to nature and offers an ironic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is the real beauty, and his presentation rings very much persuasive.

Through 'Come into Bloom', the artist also aims to commune with visitors on the placeness and significance of Seoul Botanic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work, communication with visitors and the nature of messages to be crossed. Aren't you interested in finding out for yourself whether the Seoul Botanic Park is a cultural space or not? If yes, how about enjoying and experiencing it all you want while going about it?

to the concept of objecthood and the literal art of Michael Fried. Thus, aspiration in presentnessis completed by not falling into the condition of objecthood in approach to an object and by overcoming phantasm. However, experience of the presence of literal art is basically a theatrical effect or property and depends on presence on the stage

I-SEOUL-U The plastic straw wėaves nature



서울식물원 로비프로젝트





2018.10.11. Thur -2019. 4. 14. Sun

Seoul Botanic Park Lobby Project

마곡로비-리플렛-1029-8단-발주.indd 1

서울식물원 로비프로젝트

· 정찬부, "피어나다"

서울식물원 큐레이터

전시를 열며

서울식물원은 "로비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도심형 식물원'인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장소로, 전시·공연·교육 등이 일어나는 일종의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식물문화센터는 12개 도시 식물을 전시한 '온실'과 식물종 다양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상설전시실', 식물 관련 전문서적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식물전문도서관', 전시와 문화행사 등이 가변적으로 벌어지는 '프로젝트 홀 1·2', 연령별·주제별 교육이 진행되는 '강의실(분꽃나무방, 백합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실이 독립 건물로 구성되었던 예전 식물원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식물원 로비프로젝트가 탄생되었습니다. 서울식물원 로비프로젝트는 오직 이 장소, 서울식물원의 식물문화센터 로비라는 환경과 공간에 주목합니다. 로비는 '공공건물 현관 입구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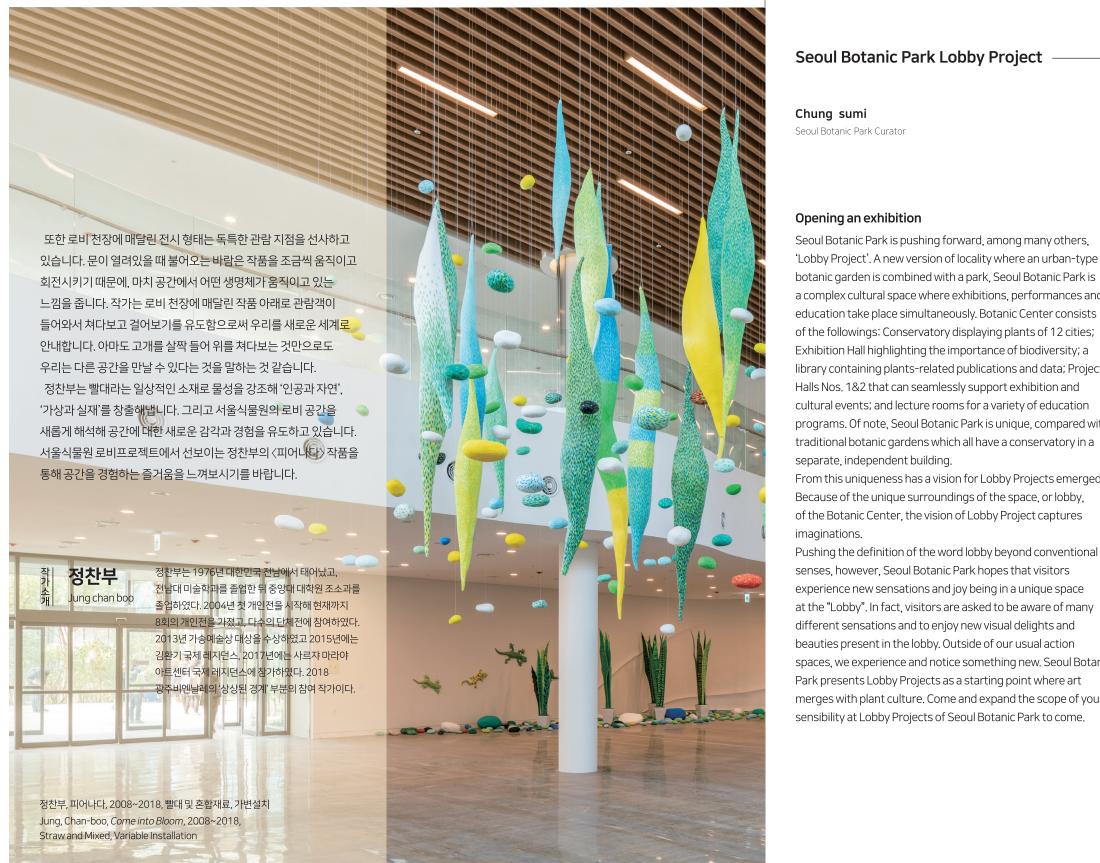
서울식물원 '로비'에서 공간을 경험하는 새로운 감각과 즐거움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로비가 아닌 시각적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다른 여러 감각에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인 공간을 벗어나면 우리의 감각은 다른 경험을 합니다. 서울식물원 로비프로젝트는 예술로 식물문화를 제시하는 시작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서울식물원 로비프로젝트를 기대해 주십시오.

서울식물원 로비프로젝트, 정찬부, "피어나다"

서울식물원은 첫 번째 로비프로젝트로 정찬부 작가의 〈피어나다〉전을 선보입니다. 식물문화센터 로비에 들어서면 전면에 보이는 정찬부의 〈피어나다〉는 초록, 파랑, 노랑, 빨강 등 생동감 넘치는 색으로 구성되어 중앙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찬부의 작품은 길쭉한 나뭇잎 또는 유충, 작은 씨앗 또는 콩, 연체동물 또는 번데기, 즉 어떤 생명체을 연상시키는 형태를 지녔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우리는 그제야 그것이 플라스틱 빨대임을 알게 되는데, 짧게 자른 빨대를 집적시킨 형태는 무한 증식하는 세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로비 왼편에는 산세베리아 화분들 사이에 돌이 깔려 있고 벽면에는 도마뱀이 기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빨대를 사용해 작가가 조성한 인공정원입니다.

털실이나 전깃줄처럼 유동적인 움직임이 내포된 재료를 사용하던 정찬부는 2007년 경부터 빨대를 주로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인 빨대를 바라보며 금방 소모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 작가는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지만 속이 비어있어 가벼운 재료인 빨대를 이용해 역설적으로 생명과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를 연상시키는 빨대는 일회용인데다가 사용 후 버려지고 나서도 지구의 환경을 위협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용하는 빨대는 자본주의 사회가 창출하고 부추기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빨대의 물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빨대로 만들어내는 형태들이 오히려 자연이나 생명의 근원, 발아하려는 생명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Seoul Botanic Park Lobby Project

Lee Jounghoon & Chung sumi Co-curators

Jung chan boo, Come into Bloom

Seoul Botanic Park Curator

Opening an exhibition

Seoul Botanic Park is pushing forward, among many others, 'Lobby Project'. A new version of locality where an urban-type botanic garden is combined with a park, Seoul Botanic Park is a complex cultural space where exhibitions, performances and education take place simultaneously. Botanic Center consists of the followings: Conservatory displaying plants of 12 cities; Exhibition Hall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a library containing plants-related publications and data; Project Halls Nos. 1&2 that can seamlessly support exhibition and cultural events; and lecture rooms for a variety of education programs. Of note, Seoul Botanic Park is unique, compared with traditional botanic gardens which all have a conservatory in a separate, independent building.

From this uniqueness has a vision for Lobby Projects emerged. Because of the unique surroundings of the space, or lobby, of the Botanic Center, the vision of Lobby Project captures imaginations.

senses, however, Seoul Botanic Park hopes that visitors experience new sensations and joy being in a unique space at the "Lobby". In fact, visitors are asked to be aware of many different sensations and to enjoy new visual delights and beauties present in the lobby. Outside of our usual action spaces, we experience and notice something new. Seoul Botanic Park presents Lobby Projects as a starting point where art merges with plant culture. Come and expand the scope of your sensibility at Lobby Projects of Seoul Botanic Park to come.

"Come Into Bloom", a Lobby Project of Seoul Botanic Park, by Jung chan boo

Seoul Botanic Park presents Jung chan boo's 'Come Into Bloom' as its first Lobby Project. The lobby of the Botanic Center shows the artist's colorful art works teeming with vitality, all hanging from the center of its ceiling. The art works all resemble in shape either a long leave or a larva or a small seed or bean, a pupa, or a mollusk; in another word, the shape of the works all remind the viewer of some organisms. Upon a close look, the viewer realizes that they all are made of countless tiny bits of plastic straws, each resembling a cell. The left wall of the lobby has a line of sansevieria vases, each separated from the next by heaps of rocks, and what appears to be desert lizards crawling on the wall, which make up an artificial garden created by the artist using

The artist, who had used to work with wool yarns, electric lines and other stretchy and pliable materials, has been using mostly plastic straws since about 2007. With serious questions about plastic straws and other things that are meant to be disposable the artist has been exploring the source of life and nature in an ironic manner involving plastic straws, a light material bright in color yet hollow inside.

The plastic straw, which is suggestive of drinking or eating, not only has a one-time use but also poses a threat to the earth's environment, even after it's discarded. Also, the plastic straw, used only by humans, symbolizes a human desire created and being stoked by capitalism. Although the artist develops works that accentuate the property of the plastic straw, the forms he creates characterize the source of nature or life, or the energy of germinating organism, a rather peculiarity.

Introduction to the artist

Born in 1976 in the Jeollanam-do Province of Korea, Jung chan boo has majored in Art at the University of Jeollnam-do In addition, the form of his exhibition hanging on the ceiling of a and mastered in Sculpture at the Graduate School of Art at lobby presents a unique view point. As each time the lobby door Chung-ang University. Since his first private exhibition in 2004, opens and lets in some wind, his art works swing or rotate a little he has completed eight private exhibition and participated in bit, giving rise to the sense that some live organisms are up in the numerous group exhibitions. He garnered a grand award at the air. By inducing visitors to look up at his hanging art works and 2013 Ga-song Art Awards; took part in the 2015 Kim Whan-ki to walk about below the works, the artist guides them into a new International Residency Art Festival and in the 2017 Sharjah realm. One of his messages may be that by tilting our head ever Maraya Art Institute International Residency Art Festival. Of slightly and looking up, we can experience a different space. late, Mr. Jung chan boo is one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of the Gwangju Biennale's 2018 edition titled 'Imagined Border'.

Mr. Jung chan boo creates the artificial and nature and the

virtual and the real by drawing attention to the property of such

an everyday material as the plastic straw. Also, by interpreting

a new one of lobby spaces at the Seoul Botanic Park, the artist

induces new sensations and experience about space. Come and

experience the joy of discovering a new about space at Jung chan

boo's 'Come Into Bloom' exhibition, the first Lobby Project of the

Seoul Botanic Park.

사용하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18-11-06 오전 10:20:49

All texts published in this leaflet are subject to the copyright of each copyright holder and seoul botanic park. No part of this publition can be reproduc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authors and the Seoul Botanic Park.

마곡로비-리플렛-1029-8단-발주.indd 2

